

# 새해 국내산 '열풍건초' 생산·유통 확대

### 농진청, 올해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 5기 추가... 총 11기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수급이 불안정한 외국산 건초를 대체하고 국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 보급한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올해 4개 시도에 추가 조성해 건초 생산과 유통 확대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건초는 수분 함량이 20% 미만으로 한우와 젖소 등 반추 가축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한 필수사료이다. 국내 생산 환경에서는 건조가 어렵다 보니 연간 100만 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제 정세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 상승 폭이 가팔라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큰 편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건초를 생산할 수 있는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2022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필수사료 수분 함량이 30~50% 수준까지 되도록 현장에서 말린 뒤 수

거해 실내에서 뜨거운 바람으로 다시 20% 미만까지 낮추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산한 건초 유통 추정가격은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경우, kg당 416원으로 수입 티머시(706원/kg)대비 41% 저렴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 보급한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올해 4개 시도에 추가 조성해 건초 생산과 유통 확대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농가 실증 연구를 통해 열풍 건조 효율과 균일도, 건초 품질 등을 꾸준히 개선했다. 또한, 기존보다 시간당 건조 생산량(0.4톤~1.3톤)을 크게 늘린 '광역형 열풍 건조 생산 시스템'을 추가 개발하고 운용 지침서를 완성했다.

아울러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 6기를 신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에 보급했다. 국내산 열풍건초 이용 확대를 위해 축종별로 열풍건초 가축 급여 효과와 품질 보안을 등 상품성도 개선했다.

2024년에는 신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경북 전남, 전북 충남 4개 시도에 총 5기를 추가 설치, 전국에 구축된 생산 기반을 토대로 현장에서 국내산 열풍건초가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과도 연계해 필수사료 생산 경영체와 유통센터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지사료과 이상훈 과장은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은 국내 생산 환경과 계절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건초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국내산 건초 생산 기반이 확대된다면 안정적인 건조 수급이 이뤄져 가격 변동에 불안했던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NH농협생명 전북총국은 지난 5일 농협전북본부에서 2024년 전북농협 내 NH농협생명 1호 가입에 대한 추진 감사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조합원과 고객에 항상 감사”

### NH농협생명 전북총국, 올해 1호 가입 감사행사 실시

NH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지광수)은 지난 5일 농협전북본부에서 2024년 전북농협 내 NH농협생명 1호 가입에 대한 추진 감사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NH농협생명 전북총국은 1호 계약을 추진한 전주완예농협 백제로 지점(지점장 남운호)의 김호현 주임을 농협전북본부로 초청해 직원들과 함께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 1호 가입 상품은 'The스마트한NH중신보'로 전주완예농협 조합원인 60대 남성고객이 가입하였다. 'The스마트한NH중신보'는 사망보장과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장 많은 고객들이 가입하는 농협생명의 인기 상품이다.

본 상품은 2024년 1월 새롭게 개정되어 보험료 납입완료 후 플러니 75세까지 사망 등 고객 혜택을 더욱 높였다. 또한 계약자는 물론 계약자 가족에게도 농협상조장례서비스상품 이용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지광수 농협생명 전북총국장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농협을 찾아주시는 조합원과 고객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 부안신재생에너지특구 입주기업 '테라리クス' CES 2024 참가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구 입주기업인 테라리クス(주)(대표 김태영)가 오는 9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전시관)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4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매년 첨단 기술 트렌드와 동향을 조망하는 세계 최대의 ICT융합 전시회로서, 올해는 150여 개 국가의 3,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며,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SK, 현대자동차 그룹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을 포함한 600개 이상의 역대 최대기업이 참가해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테라리クス(주)는 부안군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구에 입주한 연료전지 스택 및 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이번 전시회에서 △정격출력 2kW로 티타늄 금속분리판을 적용하여 경량 및 소형화를 이룬 공랭식 연료전지 스택과 △정격출력 1.5kW로 디젤발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무시동 전원장치를 전시, 차별화된 제품 라인업을 선보인다.

특히, 테라리릭스의 공랭식 연료전지 스택은 공기를 이용한 냉각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열을 제거하여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연료전지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부인=김석진기자

## 농수산물식품 산업 ESG 강화 위해 새해 첫 소통 행보 나서

###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ESG경영 CEO자문위원회' 개최해 올해 추진 방향 의견수렴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새해 첫 ESG경영 CEO자문위원회를 열어 작년의 ESG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2024년 중점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공사는 지난 2021년 4월 ESG경영 선포 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ESG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ESG경영 CEO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미래과학인재양성특별위원회 강태진 위원장을 비롯해 학계, 국제기구,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의 ESG경영 추진 경과를 반영한 심도 있

는 자문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지난해 공사의 ESG경영 노력과 성과를 비롯해 전년도 자문 의견의 실제 반영 성과를 공유했으며, 공사의 △지속 가능한 ESG 경영 전략 △ESG경영 모니터링 강화 방안 △변화된 환경에 따른 ESG 운영 내실화 방안 등 2024년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김춘진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사장은 "4년차를 맞이한 이 소통의 자리가 우리 농수산물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방향을 논의하는 ESG경영의 실천이자 본질이다" 생각한다"이라고 강조

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대한민국환경대상 공공부문 대상 △한국ESG혁신정책대상 최우수상 △소비자ESG혁신대상 소비자 권익부문 대상 △한국ESG대상 공공기관 부문 대상 등 각종 ESG 관련 대의 수상은 물론,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지역사회공헌인정제 2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농어촌ESG실천인정제 최초 인증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거두며 명실공히 ESG경영 우수기관임을 인정받았다.

/김재훈기자

##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전북우정청, 판로 확대

전북지방우정청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북 브랜드의 강점을 살린 상품개발과 우체국쇼핑을 통한 타 지역 판로 확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우정청은 우체국 쇼핑물 내 전북지역 상품이 대부분 타 지역(2023년 11월 현재 92%)에서 소비되고 있는 점에 착안, 전북을 떠나지 않고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의 판로개척

등이 가능한 온라인 공간인 '우체국쇼핑'의 장점을 활용해 도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상품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우체국쇼핑은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수입 개방)로 농어민 판로개척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1986년 12월15일 순창 전통고추장을 포함한 지역 특산물 8개 품목으로 우수한 지역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

고 산지 생산자의 농어촌 판로개척을 돕고자 시작했다.

전북우정청은 전라북도 우수 지역 상품을 발굴해 우체국쇼핑 판매 네트워크를 통한 전국적인 판로 개척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도내 546개 우수업체 3408개 상품이 우체국쇼핑에 입점했다. 또 지난해 11월 기준 192억원의 판매 매출을 기록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뉴스

## 유망 기업 혁신성장 지원

### 중기부,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7조원 정책자금 공급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총 8.7조원 규모의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7조원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4조5,575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 1조9,958억원, 성장기 2조1,424억원, 재도약기 5,318억원, 전 주기 2,875억원으로 공급

할 예정이며,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창업기에는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대상으로 1조7,958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제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시 2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문창업자금은 지난해 2,5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500억원 확대한다.

성장기에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4,174억원을 공급한다. 1,000억원은 수출 10만불 미만 내수 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894억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282억원 지원한다.

/김옥기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